달라이 라마 방한, 다시 불붙을까

방한추진회, 일본법회 앞두고 국내 초청 '시동'

조계종 총무원과 현황 공유
단시일 내 가능성은 낮지만
한반도 평화분위기에 기대↑

달라이 라마 "언제든 OK"
연말까지 방한 추진 실시
독자적 초청 운동 계획도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최근 개선된 남북관계를 비롯해 가톨릭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 등이 사회적으로 논의되면서 티베트불교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 국내 초청 움직임이 일고 있다.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한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단기간 내에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조계종 총무원 차원에서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있어 기대를 모은다.

2014년부터 달라이 라마의 방한을 추진해온 달라이라마방한추진회(상임대표 금강)는 10월 17일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한 데 이어 23일 총무원 사회부 국제팀과 추진현황을 공유하는 등 달라이 라마 초청에 군불을 때고 있다.

특히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방한추진회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달라이 라마 초청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원행 스님은 "(달라이 라마 방한을)적극 찬성하고, 오시는 것을 대환영한다. 사회부와 상의를 해야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추진하시면 도와드릴 것은 열심히 돕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도 스님은 달라이 라마의 방한으로 한국불교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다.

5년 전부터 시작된 달라이 라마 방한 추진이 다시 눈길을 끈 가장 큰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성과에 따른 한반도 평화분위기 조성이 손꼽힌다.

방한추진회 상임대표 금강 스님은 "보수정권 당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중국 반응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짙었다. 하지만 최근 한반도에 평화분위기가 조성되고, 교황의 방북까지 논의되는 등 과거와는 다른 외교가 펼쳐지고 있다"며 "이런 시기야말로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하신 달라이 라마께서 우리나라에 올 수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현재 방한추진회는 조계종 총무원 협조를 구하기 위해 5년간 펼쳐온 활동내역을 국제팀에 공유했다. 이는 앞서 총무원과 방한추진회의 교감이 거의 전무했던 것을 비교할 때 현재 달라이 라마 초청에 눈길이 가는 배경이 되고 있다. 다만 달라이 라마 초청이 단순히 불교계에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아니어서 총무원도 이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을 하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총무원 국제팀 관계자는 "달라이 라마 방한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걸려 있는 문제들은 쉽게 풀 수 있는 게 아니다.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와 흐름이 함께해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단순히 감성적인 접근보다는 사회적 공의가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순서다. 구체적이진 않지만 앞으로도 방한추진회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방한추진회는 11월 13일 예정된 달라이 라마 일본법회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 차원의 초청장을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또한 연말까지 정부와 총무원 차원의 협조를 구하지 못했을 때는 현재까지 받아둔 16만여 명의 서명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초청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방한추진회 사무총장 목종 스님은 "달라이 라마 존자는 정치적인 분이 아니고, 대외직함도 없는 종교인일 뿐이다. 존자께서도 우리나라 여건만 된다면 언제든지 오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며 "순수한 목적의 초청인 만큼 불교시민단체와 언론 등과 함께 활동에 나설 계획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불교중앙박물관장에 송하 스님 임명

조계종 산하기관 인사… 사회연구소장 원철 스님

조계종이 불교중앙박물관장에 송하 스님을 임명하는 등 산하기관 인사를 단행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10월 25일 불교중앙박물관장에 송하 스님, 불교사회연구소장에 원철 스님, 불교신문사장에 진우 스님, 백년대계본부 사무총장에 일감 스님·사무국장 원묵 스님을 임명했다.


사진 왼쪽부터 백년대계본부 사무국장 원묵 스님, 불교중앙박물관장 송하 스님, 총무원장 원행 스님, 불교신문사장 진우 스님, 백년대계본부 사무총장 일감 스님, 불교사회연구소장 원철 스님.

불교중앙박물관장 송하 스님은 능엄스님을 은사로 1990년 수계했다. 마곡사 태화선원, 망월사 천중선원, 덕숭총림선원, 고불총림선원 등에서 안거 수행하고, 현재 보리사 주지를 맡고 있다.

불교사회연구소장 원철 스님은 법전스님을 은사로 1987년 수계했다. 해인사 승가대학 교수, 해인사 월간해인 편집장,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포교원 포교연구실장 등을 역임했다.

불교신문사장 진우 스님은 백운 스님을 은사로 1978년 수계했다. 제18교구본사 백양사 주지 및 총무원장 권한대행, 총무부장, 기획실장, 사서실장, 호법부장을 역임했다.

백년대계본부 사무총장 일감 스님은 원융 스님을 은사로 1990년 수계했다.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 사무총장, 기획실장, 재무부장, 불교사회연구소장, 제16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백년대계본부 사무국장 원묵 스님은 도법 스님을 은사로 2001년 수계했다. 포교원 포교국장 및 포교원구실 사무국장을 역임하고, 현재 광주 선덕사 주지를 맡고 있다. 윤호섭 기자

조계종 단일계단 성립 의의 살피다

율장연구회, 10월 22일 제5회 계율토론회

조계종 단일계단 성립과 의미를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율장연구회(회장 무관)은 10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단일계단 설립'을 주제로 제5회 계율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계단위원 무관 스님의 기조 발제를 비롯해 단일계단 설립과 운영,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논문 발표들이 이뤄졌다.

무관 스님은 기조 발제를 통해 "계율은 수행의 기초"라면서 "승가는 스스로가 행위의 주체로서 평등, 자유의 실천자다. 이런 면에서 계율 행지(行持)는 깨달음으로 가는 수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계율은 오직 승가의 유지 존속에만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법이 세간에 지속적으로 유전해나가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출가자 자신의 청정성 확보는 포살과 자자를 통해 얻게 돼 참회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는 계기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날 토론회에서는 영축율학승가대학원 율감 정본 스님이 '단일계단 설립 의의'를, 송광사 율감 승덕 스님이 '단일계단 제도와 운영'을, 통도사 대전포교원의 설문 스님이 '단일계단의 발전 방향'을, 운문사승가대학장 일진 스님이 '조계종 이부승수계제도의 정착과 의의'를 각각 발표했다. 신성민 기자



성운 스님의
보리수 아래서

가을에 만나는 상불경보살

가을입니다. 잘 익어 고개숙인 벼와 농익은 과일, 하루가 다르게 물들고 떨어지는 낙엽은 겸손과 하심을 상징하는 '가을의 향기'입니다.

겸손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낮추면서 남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반대로 겸손함이 없이 잘난체 하며 건방지고 버릇없음이 불교에서 비롯된 말 교만(驕慢)입니다. 남을 깔보고 자신에 대한 믿음이 지나쳐 우쭐거리는 마음입니다.

요즘 사회 곳곳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갑질은 바로 교만에서 나옵니다. 하심은 겸손과 같은 뜻입니다. 선가의 마음내려놓기 방하착(放下著)에서 온 선어입니다.

깊어가는 이 가을에 나는 겸손한가 교만한가, 나는 얼마나 내려놓을 수 있는가, 자성반조(自性返照)해 봅시다.

'철을 안다'는 말이 있듯이 가을처럼 겸손하고 가을햇살처럼 착하고 가을하늘처럼 청명합시다.

*법화경 〈상불경보살품〉에 나오는 상불경보살(常不輕菩薩)은 겸손과 하심의 본보기 인물입니다. 상불경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과거 인행(忍行)을 닦을 때의 이름으로 '늘 공경하고 무시하거나 천시하지 않는 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먼 옛날, 위음왕(威音王) 부처님이 멸한 후 깨달음을 얻은체하는 증상만(增上慢) 비구들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 때 상불경 보살 비구는 증상만 대중이 멀리서 지나가면 쫓아가서 예배 찬탄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대들을 깊이 공경하며, 결코 경멸하지 않겠습니다. 그대들은 다 보살도를 행해서 성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이들은 "이 어리석은 비구야, 네가 어찌 우리에게 성불할 것이라고 수기까지 주느냐"며 꾸짖고 몽둥이와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보살은 피해 달아나면서 더 큰 소리로 "나는 그대들을 가벼히 여기지 않는다. 모두 부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고 말했습니다.

해를 거듭하는 욕설에도 상불경보


가을처럼 겸손하고 가을햇살처럼 착하고 그림 · 조항숙

가을은 겸손 상징의 계절
상불경, 늘 이웃 공경 '겸손'
교만 버리는 無我 · 廣利行

살이 성내지 아니한 이것이 진무아(眞無我)입니다. 스스로 겸손을 보여 교만이라는 번뇌를 치료하기 위한 간절함이었습니다.

보살 비구가 임종할 때에 허공에서 법화경 이십천만억 게송이 들려와 다 듣고 육근 청정을 얻었으며 수명이 늘어나 이백만억 나유타의 세월동안 널리 대중을 교화했습니다.

보살을 업신여긴 증상만 사부대중은 일천겁 동안 아비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죄보가 끝난 후 상불경의 자비 교화로 아뇩다라삼먁삼보리심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교만을 철저히 버린 보살의 광리(廣利)입니다.

*자기를 내세우며 제 잘난 맛에 사는 이들이 많습니다. 아만을 죽여야 겸손해집니다. 안이비설신의를 다스려 '나'에 집착하지 않고 말과 행동과 마음이 청정하면 탐진치가 소멸됩니다. 겸손은 수행입니다. 상불경보살이 모든 이웃의 불성에 합장하듯 겸손은 귀의입니다. 그리고 무아입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은 먼지보다 더 겸손해야 한다." 마하트마 간디의 말입니다. 이 가을 우리 모두 상불경 보살이 됩시다.

〈삼천사 회주 · 동국대 석좌교수〉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9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8년 11월 25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돈암동 83-2)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 (돈암동 83-2)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 http://www.njutcm.co.kr